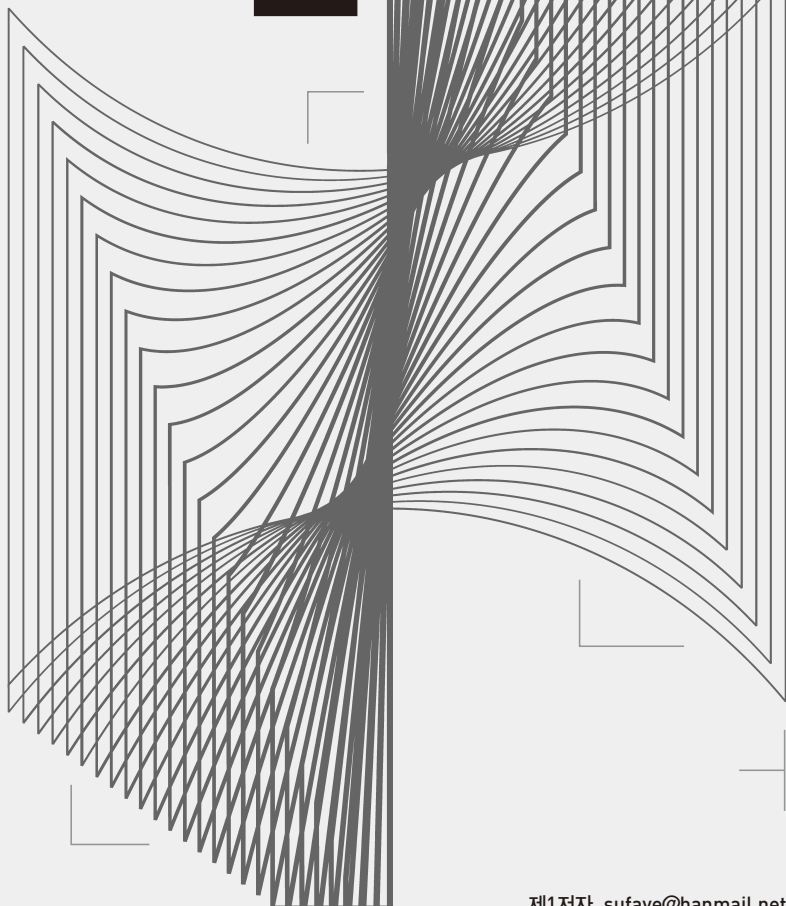


문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8호

(2026/봄)



제1저자. sufaye@hanmail.net

이질과 체계의 공존

『山中一夕話』 下集의 문체와 편집 고찰

김숙향(고려대학교 · 중국학연구소 · 연구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6.4.58.179>

I. 들어가며

■ 『山中一夕話』는 明末 李贄(1527-1602)가 편찬했다고 알려진 『開卷一笑』를 저본으로 삼아 수정한 文獻笑話集으로 전해진다. 上, 下 2 集, 총 14권으로, 상집의 1권부터 7권까지는 賦, 詩, 詞, 傳, 祭文 등 다양한 문학 양식을 아우르는 96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하집의 1권부터 7권까지는 총 376편에 달하는 산문체 소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지와 屠隆(1543-1605)처럼 권수에 이름을 적은 인물들의 생몰년과 서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서의 완성과 간행 시기는 대략 만력 30년(1602)에서 33년(1605) 사이로 추정된다.¹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쟁점은 편찬 주체가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표제와 권수에는 ‘明 李贄 編, 屠隆 參閱’이라 적혀 있고, 三台山人이 찬한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면 권마다 기록된 서명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어떤 권에는 ‘卓吾先生 編次, 一衲道人 屠隆 參閱’로, 또 다른 권에는 ‘卓吾先生 編次’로만 적혀 있거나 아예 서명이 없는 권도 있다. 또 이지와 도룡이라는 당대 실존 명사들의 이름 곁에 笑笑先生 增訂, 哈哈道士 較閱 같은 서명이 추가되어 편찬자와 수정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51A5B5A 16076772)

1 『山中一夕話』의 대체적인 내용과 구성, 편찬자의 문제는 김숙향, 「明末 文獻笑話 탐색 — 李贄 『山中一夕話』 笑話에 반영된 文人 趣向」, 『중국학논총』, 2025, 88 참조.

자에 대한 혼란까지 가중되었다. 현재까지 『산중일석화』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² 그 많지 않은 연구 중에도 저본의 저자와 편집자를 고증하는 연구가 주목받았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 텍스트의 가장 큰 연구 쟁점이 바로 편찬의 주체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대만의 侯淑娟은 이지의 이름을 가탁하는 위작이 성행했던 명말 출판계의 배경과 이지의 여타 저작과 서신에 『산중일석화』의 저본으로 알려진 『개권일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지의 친필 저작이 아님을 논증하였고³ 이러한 위작의 혐의는 현대까지 이어졌다.⁴ 또한, 편찬자에 대해서도 邢慧玲에 따르면,⁵ 권수에 등장하는 소소선생이 명말의 徐渭이고 서위가 茅山에 가서 삼태산인에게 『산중일석화』의 서문을 써 달라고 청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헌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저

2 현재까지 나온 『산중일석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단 5편의 단편 논문에 그친다. 기존 연구들은 작가 고증이나 개별 작품의 귀속 문제와 같이 일부 사안에 집중하였고 텍스트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문헌소화로서의 편찬 의식이나 가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이는 『산중일석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黃霖, 『開卷一笑』與『金瓶梅』作者問題——從答『笑笑先生何許人也』說起, 『復旦學報: 社會科學版』, 1987, 4.

侯淑娟, 『山中一夕話』初探, 『東吳中文研究集刊』, 1996, 05(3期).

邢慧玲, 『山中一夕話』中的『醒迷論』作者非屠隆考辨, 『洛陽師範學院學報』, 2013, 32.

吳儀鳳, 『山中一夕話』所錄俳諧體賦作之諧謔性探討, 『國立臺灣科技大學人文社會學報』, 2018, 4(3).

김숙향, 『明末 文獻笑話 탐색 — 李贄 『山中一夕話』笑話에 반영된 文人 趣向』, 『中國學論叢』, 2025, 88.

3 侯淑娟, 『山中一夕話』初探, 『東吳中文研究集刊』, 1996, 05(3期)

4 2000년 社會科學文獻出版社에서 간행된 『李贄文集』(전7권)에는 『산중일석화』가 수록되지 않았다. 이는 위작 의식이 당시 학계의 지배적 견해였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2023년 首都師範大學出版社에서 편찬한 『李贄全集續編』에는 『山中一夕話』가 포함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지의 진작임을 확정할 만한 연구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도사범대학 출판사본은 저작 귀속이 불확실한 문헌도 관련 자료로서 포함하는 고적 정리 출판의 성격상 수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5 邢慧玲이 笑笑先生을 徐渭라고 주장한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일부 문장들에서 서위의 독특한 필치가 드러난다. 둘째, 『山中一夕話』 하집에 수록된 50여 건의 소화가 『刻徐文長先生秘集』 12권을 바탕으로 증보 및 개정되었다. 셋째, 서위와 동시대 인물인 吳而待의 『蘭皋集』에 따르면, 서위가 과거에 낙방할 때마다 해학적인 말과 수수께끼를 지었으며 그 책의 이름을 『一夕話』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邢慧玲, 『論笑笑先生是徐渭』, 『明清小說研究』, 2006, 02 참조.

본의 편찬자와 수정자를 둘러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산중일석화』라는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찬자와 수정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이렇게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연구에 집중하여 정작 텍스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파악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편집주체가 혼란스러운 텍스트의 내재적 가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현재 저본인 『개권일소』가 일실되어⁶ 두 문헌 간의 직접적인 대조는 불가능하나, 권마다 달리 기재된 서명과 중첩된 교열자의 기록, 또 작품의 표제와 배열은 일종의 파라텍스트(Paratext)⁷로서, 이 텍스트가 누적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외형적 표시이며,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산중일석화』에 수록된 유일한 서문에서 삼태산인은 이 책을 소소선생에게 받았는데, 소소선생이 이지의 『개권일소』에서 낡고 진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신선한 부분을 보충했다고 적어놓았다.⁸ 그러나 소소선생과 삼태산인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을 쓰는 인물의 서문을 또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과연 서문에 적힌 대로 소소선생의 수정을 거쳤고 또 여러 권마다 등장하는 교열자와 참여자의 수정이 더해졌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6 현재 일본 내각문고 소장 紅葉山文庫 명각본인 『개권일소』 14권본이 전해지지만 이 역시 서명만 다른 『산중일석화』이다.

7 Paratext란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 Gérard Genette가 제시한 개념으로,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통칭한다. 즉, 서명(표제), 序跋文, 범례, 목차, 주석과 평점 등이 포함된다. 주네트는 이런 정보들이 독자가 텍스트로 진입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수용하는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여 '텍스트의 문턱(threshold)'이라 정의하였다. 다만, 주네트의 논의는 서구 근대 서적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본문을 제외한 편찬자, 수정자의 서명, 목차, 표제 등 문헌의 외적 형식을 구성하는 겉텍스트라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차용하고자 한다. Genette, Gérard, and Jane E. Lewin, trans,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1, Introduction.

8 『山中一夕話』「序」: “光明媚, 偶遊句曲, 遇笑笑先生於茅山之陽, 班荆道及, 固出一編, 蓋本李卓吾先生所輯『開卷一笑』, 刪其陳腐, 補其清新, 凡宇宙間可喜可笑之事, 齊諧遊戲之文, 無不備載, 欲曰『山中一夕話』, 李贊 編, 顏彥 整理, 『山中一夕話』,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23, 1쪽.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한다. 첫째, 『산중일석화』의 텍스트 내부에는 다수의 편찬 주체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이질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둘째, 이질적인 요소가 담긴 텍스트에서도 일정한 체계가 존재하는가. 이 두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디지털 인문학의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⁹와 전통적인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¹⁰ 방법을 융합해서 분석할 것이다. 멀리서 읽기는 계량적 문체 분석을 통해 텍스트 내부의 어휘적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꼼꼼히 읽기는 문장 정독을 통해 편찬 구성의 논리와 표제의 비평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하집의 산문체 소화 376편으로 한정하였다.¹¹ 본고가 참고한 『산중일석화』는 首都師範大學出版社 출판본이다. 이 책은 14권본 『續修四庫全書』를 저본으로 삼고 명말 14권본 梅墅石渠閣과 일본 내각문고 소장본 등 다양한 판본을 대조하여 교감, 정리한 것이다.

II. 멀리서 읽기로 본 언어적 이질성

■ 『산중일석화』 내부의 이질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장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텍스트 전체를 조망하고 데이터의 군집적 경향성을 파

9 멀리서 읽기는 이탈리아 출신 비교문학자인 Franco Moretti가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문학 작품을 대용량으로 집적하여 그 연구 대상을 연구자와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읽는 방식으로, 이는 현재 디지털인문학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프랑코 모레티, 이재연 옮김, 『그래프, 지도, 나무-문학사를 위한 추상적 모델』, 파주: 문학동네, 2020, 137쪽.

10 정독을 의미하는 Close reading은 직역하면 가까이 읽기이다. 그러나 이 방법론의 핵심은 물리적 거리가 아닌 텍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식이기에, 『그래프, 지도, 나무-문학사를 위한 추상적 모델』에서 번역한 것처럼 꼼꼼히 읽기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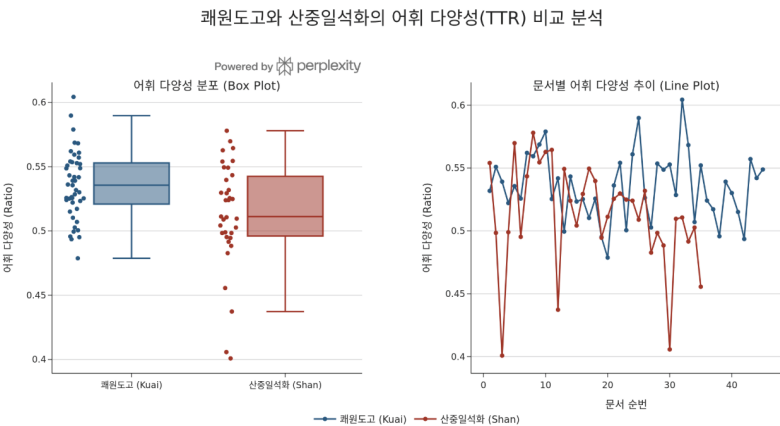
11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을 하집의 산문체 소화로 한정한 것은 상집에 수록된 소화가 운문과 산문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화의 문체적 특징을 산문체로 한정하는 것에는 필자도 회의적이나,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고, 다른 문헌소화서가 대체로 산문체로 지어진 점을 고려하여, 교차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우선은 산문체로 한정하였다.

악하는 멀리서 읽기 방법으로 분석하겠다. 구체적인 계량 분석 도구로는 Voyant Tools와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AntConc4.3.1, 그리고 Python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비교군으로는 張岱(1597-1684)가 편찬한 문헌소화서 『快園道古』를 설정하였다. 『쾌원도고』는 『산중일석화』와 같이 명말에 출현한 문헌소화이다. 무엇보다 장대라는 단일하고 신원이 명확한 편찬자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복수의 편찬 주체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중일석화』와 대비하기에 적합한 통계군이 된다.¹² 이러한 대조를 통해, 다수의 손을 거쳐 누적된 텍스트가 단일 편찬자의 텍스트와 어휘적으로 어떠한 이질적 특성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계량 분석에 앞서 통계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의 전처리를 하였다. 첫째, 어휘 다양도(Type-Token Ratio, TTR)¹³는 텍스트의 분량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어휘의 출현 빈도가 감소하여 수치가 낮아지는 통계적 편향이 발생한다.¹⁴ 이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두 텍스트 모두 구두점과 공백을 제거한 순수 한자 기준 1,000자

- 12 당초 명말의 여러 문헌소화서를 비교군에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분량의 편차가 크고 편찬 특징이 확연히 달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아직 명말 문헌소화에 대한 텍스트 발굴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필자가 명확히 장악할 수 있는 텍스트로만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역량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비교군을 확대하고 면밀히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13 어휘다양도(TTR)는 텍스트에서 서로 다른 어휘 수(type)를 전체 어휘 수(token)로 나눈 값이다. 즉 전체 어휘가 2000일 때 서로 다른 어휘의 수가 400이면 TTR은 0.20이 된다. TTR 값이 높을수록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 적고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값이 낮을수록 동일 어휘의 반복이 많아 어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TTR은 텍스트의 어휘 다양도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코퍼스 기반 언어 연구의 기본 절차에 관해서는 강범모의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제3장 빈도를 참조할 수 있다.
- 14 Tweedie, F. J., & Baayen, R. H.는 어휘풍부성(Lexical Richness) 측정에 흔히 쓰이는 TTR을 포함한 여러 지표들이 텍스트 길이와 무관한 Constant로 간주되어 온 통념을 검증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실제 텍스트를 길이별로 확장하고 분절하여 지표 값의 변동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제 텍스트에서는 TTR을 비롯한 어휘 다양성 내지 풍부함 지표들이 텍스트 길이 N에 따라 변하며, 특히 TTR의 텍스트 길이 의존성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길이가 서로 다른 텍스트들 사이에서 TTR 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길이 효과가 개입될 위험이 크고 동일 분량으로 조절하거나 분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Tweedie, F. J., & Baayen, R. H. (1998). "How Variable May a Constant Be? Measures of Lexical Richness in Perspective",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32(5), 참조.

단위로 균등하게 분절하였다. 둘째, Voyant Tools는 기본적으로 현대 중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자동으로 구동되기에, 1글자가 1단어로 기능하는 『산중일석화』와 같은 고대 중국어를 그대로 입력할 경우 형태에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¹⁵ 이에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순수한자 텍스트의 모든 글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프로그램이 공백을 기준으로 1글자를 정확히 1개의 독립된 단어로 분절하여 인식하도록 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문 텍스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문법적 허사들을 불용어 리스트로 구축하여 분석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였다.¹⁶ 실질적인 형태소와 의미 어휘의 다양성만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분석 환경을 이와 같이 정교화하였다. 이렇게 전처리한 두 텍스트를 Voyant Tools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산중일석화』와 『패원도고』의 어휘다양성 비교 분석

15 Voyant Tools Help의 'Document Languages' 참조. <https://beta.voyant-tools.org/docs/tutorial-languages.html>(검색일 2026.03.10)

16 실제로 전처리 과정에 포함되는 불용어제거는 Voyant Tools에서 진행하였다. 이에 뒤의 분석 대상의 자수의 차이, 즉 분량의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범주가 크지 않기에 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1〉은 Summary를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불용어가 제외된 실제 분석 대상은 총 74,856자, 6,132개의 고유 어휘로 집계되었다. 각 분절의 실제 자수는 분석 엔진의 불용어 제거로 인해 원래 설정값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그 결과 『채원도고』는 최저 911자(Kuai_45)에서 최고 950자(Kuai_04), 『산중일석화』는 최저 920자(Shan_19)에서 최고 963자(Shan_03)로, 모든 분절이 930자 내외의 유사한 분량으로 통제되었다. 〈그림 1〉을 보면, 텍스트의 물리적 길이를 비슷하게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찬자의 문체적 역량과 고유한 어휘 구사 패턴을 반영하는 TTR에서 두 문헌 간 뚜렷한 대조가 확인된다. 장대가 편찬한 『채원도고』는 45개 분절의 평균 TTR이 약 0.535(표준편차 0.028)로, 최저 0.478(Kuai_20)에서 최고 0.604(Kuai_32) 사이의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에 수치가 밀집되어 있다. 이는 단일한 서술자의 안정적인 어휘 구사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산중일석화』의 경우, 35개 분절의 평균 TTR은 0.512로 『채원도고』의 0.535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텍스트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지표는 분절 간 편차의 폭이다. 『산중일석화』의 표준편차는 0.041로 『채원도고』의 약 1.5배에 달한다. 분절 순번(문서순번)이 기록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최고 수치를 기록한 Shan_08(0.578)과 Shan_05(0.570) 등은 『채원도고』의 상위 분포와 중첩될 만큼 풍부한 어휘력을 보여주었으나, 반대 극단에서는 지표의 급격한 하락이 다수 관찰된다. Shan_03은 0.401, Shan_30은 0.406, Shan_12는 0.437, Shan_35는 0.456으로, 동일하게 통제된 분량의 문장에서 고유 어휘 비율이 0.4 초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것은 매우 큰 격차이다. 이 가운데 Shan_03의 경우, 전체 분절 가운데 가장 긴 963자를 수록하고 있어 TTR의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채원도고』의 최장 분절인 Kuai_04(950자) 역시 0.522라는 안정적인 TTR을 유지하고 있

다는 사실로 본다면, 분절 길이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는 0.401이라는 큰 수치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TTR 편차는 텍스트의 물리적 분량이 아니라, 해당 분절 자체가 지닌 서술 방식이나 이질적인 문체에 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편집자가 고대 원전에서 원문을 그대로 수록한 분절 부분과 편집자의 스타일대로 가공한 분절 부분이 혼재할 경우에도 TTR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채원도고』 역시 다양한 고대 문헌에서 소화를 채록하여 편찬한 문헌소화임에도, 원전의 성격 차이가 TTR에 미치는 영향이 0.126이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안에 수렴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산중일석화』의 0.177에 달하는 큰 편차 범위는 원전 가공도의 차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중일석화』는 한 명의 편집자가 평소 사용하던 어휘 습관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어휘를 구사한 것이 아닌, 여러 언어습관이 혼재하는 집단 편찬의 산물임을 분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TTR은 어휘 다양성의 총량을 포착하는 데 유효한 지표이나 어떤 언어 습관이 텍스트 내부의 이질성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저자가 의식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문법 요소인 虛辭의 분포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허사는 내용어와 달리 서술 주제나 인용 대상의 변화에 따라 용법이 달라지지 않으며, 필자의 의도적 선택보다 무의식적 언어 습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운용되는 경향이 있어 문체 귀속 분석에 적합한 지표로 판단하였다. 분석 대상 허사는 之, 也, 於, 耳, 乎, 哉의 여섯 글자이며¹⁷ 코퍼스

17 분석 대상 허사는 고전 한문에서 출현 빈도가 높고 문법적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는 여섯 글자로 선정하였다. 之는 관형격 및 목적격 조사이고, 也, 耳, 乎, 哉는 각각 서술, 한정, 의문,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문말 어기사이며, 於는 처소나 비교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기능한다. 而, 以, 所 등 여타 허사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해당 글자들이 인용문의 문맥이나 원전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출현 빈도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편집자의 문체적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삼기에 불안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원중 편저, 『한문 해석 사전』, 서울: 휴머니스트, 2020 참조.

분석 도구 AntConc를 활용하였다. 앞선 TTR분석과 마찬가지로 분량이 부족한 마지막 문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허사 사용 비교

허사	『쾌』 정규빈도 (%)	『산』 정규빈도 (%)	빈도 차이 (%)	『쾌』 커버리지 (%)	『산』 커버리지 (%)	『쾌』 평균 분산도	『산』 평균 분산도
之	18.66	17.63	+1.03	100.0	100.0	0.744	0.750
也	4.72	5.30	-0.58	97.8	97.2	0.450	0.523
於	3.75	3.10	+0.65	95.7	91.7	0.357	0.278
乎	0.68	1.55	-0.87	41.3	80.6	0.117	0.199
耳	1.08	1.50	-0.42	47.8	72.2	0.223	0.222
哉	0.26	0.31	-0.05	21.7	25.0	0.033	0.000

〈표 1〉은 두 텍스트에서 각 허사의 정규빈도(%), 커버리지(%), 평균분산도를 제시한 것이다. 정규빈도는 코퍼스 전체의 토큰 수 대비 해당 허사의 출현 횟수를 천분율(%)로 환산한 값이다. 커버리지는 해당 허사가 한 번이라도 출현하는 분절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허사의 사용이 텍스트 전체에 걸쳐 있는지 혹은 특정 분절에 국한되는지를 보여준다. 평균분산도는 허사의 출현이 분절 간에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1에 가까울수록 분절 간 출현 빈도가 고르고 0에 가까울수록 특정 분절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두 텍스트 간 허사 분포에서 일부 수치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之와 也와 같이 기초 문법의 골격을 이루는 허사는 두 텍스트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乎와 耳의 커버리지를 보면, 乎의 경우, 『산중일석화』의 정규빈도는 1.55%로 『쾌원도고』의 0.68%

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빈도 차이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커버리지의 격차이다. 『쾌원도고』에서 乎는 전체 분절의 41.3%에만 출현하는 반면, 『산중일석화』에서는 80.6%의 분절에 걸쳐 나타났다. 장대라는 단일 편찬자의 텍스트에서 乎가 절반에 못 미치는 분절에만 산발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장대가 乎를 즐겨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산중일석화』에서 乎가 분절의 대다수에 걸쳐 출현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일 편찬자의 어휘 습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乎를 빈번히 구사하는 복수의 편찬자가 편찬에 관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산도 역시 『산중일석화』가 0.199로 『쾌원도고』의 0.117을 상회하여, 乎가 텍스트 전체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於의 경우는 앞선 어기사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규 빈도와 커버리지, 분산도 세 지표 모두 『쾌원도고』가 『산중일석화』를 넘어섰다. 특히 분산도에서 『쾌원도고』가 0.357, 『산중일석화』가 0.278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장대가 於를 텍스트 전반에 걸쳐 고루 즐겨 사용했다는 뜻이다. 반면, 『산중일석화』에서 於의 분산도가 낮다는 것은 於의 사용이 특정 분절에 편중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는 편찬에 관여한 주체들간에 於의 선호도가 다를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哉는 두 텍스트 모두 정규빈도 0.3% 이하, 커버리지 21~25%에 불과하여, 문체 변별의 지표로 삼기에는 절대 출현량이 부족했다. 다만 『산중일석화』의 분산도가 0.000으로 나타나는 哉를 구사하는 특정 필자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으나, 표본이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편찬자의 무의식적 언어 습관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乎와 耳에서 커버리지와 분산도의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쾌원도고』에서는 乎와 耳의 출현이 분절의 절반 이하에 국한되는 반면, 『산중일석화』에서는 분절의 70~80%에 걸쳐 나타났다는 점은 그것이 서로 다

른 여기서 선호 패턴을 지닌 복수의 필자층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두 문헌소화집이 편찬자가 직접 창작한 텍스트가 아니라 기존 문헌에서 소화를 채록하여 엮은 선집이기에 허사의 분포가 반드시 편찬자의 글쓰기 습관만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정 허사가 많은 작품을 수록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둘 모두 원문에 제목을 더하든, 고유명사를 생략하든, 어떤 식으로든 가공하여 원문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단일한 편찬 주체가 일관된 기준으로 텍스트를 선별하고 가공하였다면, 그 결과물의 허사 분포 역시 일정한 범위 안에 수렴할 개연성이 높다. 즉 『쾌원도고』의 乎 커버리지가 41.3%라는 것은 장대의 습관이든 선문의 취향이든 하나의 일관된 경향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산중일석화』에서 乎의 커버리지가 80.6%에 이르고 분산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단일한 경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뜻이니, 이에 편찬에 여럿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어서 『산중일석화』의 파라텍스트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나누어 이질성과 복수 편집자의 주장의 추가 근거가 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중일석화』는 각 권마다 서명이 다르다. 이에 ‘卓吾先生 編次’, ‘笑笑先生 增訂’, ‘哈哈道士 較閱’라고 적힌 2권, 4권, 7권을 A그룹으로, 卓吾先生 編次’라고 적힌 1권과 6권을 B그룹으로, ‘一衲道人屠隆 參閱’이라고 적힌 권3을 C그룹으로, 아무 서명이 없는 5권을 D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AntConc와 Python을 활용하여 각 그룹의 허사 빈도와 N-gram을 분석하였다. 그룹별 글자 수는 A그룹 14,697자, B그룹 11,606자, C그룹 3,381자, D그룹 4,434자로, 그룹 간 텍스트 크기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모든 빈도 값은 1만 자당 정규화 빈도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산중일석화』 전체 코퍼스에서 AntConc로 상위 빈도 허사 5종, 之, 以, 其, 而, 也를

추출하였고, 그것의 그룹별 상위 빈도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 그룹별 허사 만 자당 빈도 비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之	175.0	169.6	188.5	188.6
以	92.3	69.2	75.4	105.0
其	76.2	55.7	81.2	85.7
而	63.9	63.3	63.8	96.4
也	48.4	57.4	60.9	51.4

분석 결과, 가장 주목되는 것은 而의 분포이다. A, B, C 세 그룹이 63.3에서 63.9로 거의 동일한 빈도를 보이는 반면, D그룹은 96.4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以와 其에서 B그룹은 각각 69.2와 55.7로 다른 그룹보다 낮은 빈도를 보이는 반면, D그룹은 105.0과 85.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서명이 다른 그룹 간에 허사 사용 빈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설명해준다. 이어서 2-gram(Bigram) 패턴 분석을 살펴보자. 2-gram은 연속된 2개의 단위 묶음으로, 허사가 어떤 어휘와 결합하여 사용되는지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단어의 빈도를 단독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문체적 특징을 더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 허사를 포함하는 상위 Bigram 패턴의 그룹별 만 자당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그룹별 허사 포함 Bigram 만 자당 빈도 비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以爲	10.2	4.3	11.8	2.3
於是	6.8	1.7	3.0	2.3
所以	5.4	1.7	0.0	2.3
戲之	3.4	7.8	3.0	2.3
久之	2.7	6.0	0.0	2.3
謂之	0.7	4.3	0.0	11.3
何以	3.4	0.9	3.0	9.0
而不	2.0	7.8	0.0	9.0
所謂	2.0	1.7	0.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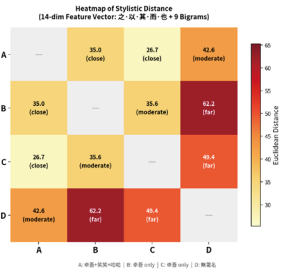
분석 결과, 그룹별로 특징적인 Bigram 패턴이 확인되었다. 첫째, A그룹은 以爲, 於是, 所以와 같이 인과 관계나 판단을 표현하는 패턴의 빈도가 높다. 둘째, B그룹은 戲之, 久之의 빈도가 높아 특정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거나 시간 경과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셋째, D그룹은 謂之, 何以, 而不, 所謂처럼 논평이나 이유를 서술하는 패턴에서 다른 그룹과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수록된 소화의 내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역시 내용을 배열하는 편찬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서술의 성향의 차이까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허사의 출현 빈도를 각 그룹의 전체 어절 수를 기준으로 정규화한 뒤, 이 다섯 개의 수치를 하나의 묶음으로 삼아 각 그룹의 문체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어 두 그룹의 지표 묶음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산출하였다. 유클리드 거리란 두 지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다차원으로 확장한 것으

로, 본고에서는 두 그룹의 허사 사용 패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환산하였다. 이 값이 작을수록 두 그룹의 허사 운용 양상이 유사하고, 클수록 이질적이다.

〈표 4〉 그룹 간 문체 거리 비교 표와 히트맵

그룹	거리	허사	평가
A ↔ C	25.5	以·其 유사	가장 가까움
B ↔ C	32.5	也 유사	비교적 가까움
A ↔ B	32.6	則 차이	비교적 가까움
A ↔ D	38.8	而 차이	중간 거리
C ↔ D	45.3	以·其·而 차이	먼 편
B ↔ D	60.6	以·其·而 전반	가장 멀



분석 결과 A그룹과 C그룹의 거리(25.5)가 가장 작아 문체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B그룹과 D그룹의 거리(60.6)가 가장 커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의 히트맵을 보면 색이 짙을수록 문체적 거리가 멀고 밝을수록 가깝다. 특히 서명이 없는 D그룹은 A, B, C 세 그룹 모두와 비교적 큰 거리를 보이며, 그 중에서도 B그룹과의 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D그룹이 다른 그룹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체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서명이 다른 그룹 간에는 허사 사용 패턴과 Bigram 구조가 다른데, 특히 서명이 없었던 D그룹이 다른 그룹과의 차이를 보였다. 물론 C와 D그룹이 A와 B그룹에 비해 텍스트 분량이 적어 통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산중일석화』의 복수 편찬자라는 설을 계량적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역시 다양한 변수가 있었고 결과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계량분석을 통해 텍스트 내부의 이질성과
파라텍스트로 도입한 분석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근거가 되어주었다
고 할 수 있겠다.

III. 꼼꼼히 읽기로 본 편찬의 체계성

■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중일석화』는 단일 저자의 일관된 기획
아래 완성된 텍스트는 아니다. 명말 馮夢龍(1575-1645)의 문헌소화
『古今譚概』처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여 편찬 구성의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고, 청말 문헌소화 『笑笑錄』처럼 수록된 소화
의 원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지도 않았다. 편찬하게 된 목적이나 의
도 또는 수정과 가공의 기준이나 사유 등을 명시하는 범례도 없고,
나아가 신뢰할 만한 실존 인물이 쓴 서문조차 전무하다. 이런 점들은
『산중일석화』라는 텍스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텍스트 본
연의 가치나 특징을 절하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논증했던 텍스
트 내부의 이질적인 양상은 그것이 일정한 편집의 규칙이나 원리 없
이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잡다하게 모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편집 주체가 다양하고 텍스트에 이질적인 요소
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무질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산중
일석화』에 수록된 작품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속에서 편집에 어떤
체계를 부여하려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편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하집의 1권부터 7권까지의 분류 기준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1권에는 蘇軾의 일화만이 수록되어 있다
는 점이다. 총 66편의 소화가 수록된 하나의 권 전체를 단일 인물의

일화로 구성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의식적인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아울러 그것이 저본 저자의 편집인지 후대 수정자의 편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식의 이야기가 한 권에 수록되는 데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소식인가. 중국 고전문학에서 소식은 송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후대 문학에도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張國培에 따르면¹⁸ 소식의 일화는 복송 이래 文言筆記에서 수집되기 시작했고 명청시기에 본격적으로 『淸平山堂話本』과 『喻世明言』 같은 통속소설 속에 일화가 삽입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소식 이야기의 변천 과정이 화본소설의 성숙과 발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했고, 명대에 이르면 이야기(情節)가 중심이고 소식은 그에 맞춰 등장하는 도구적 인물로 수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장국배는 통속소설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산중일석화』 1권의 소식 일화에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1권에 수록된 소식의 일화들을 살펴보면, 소식이라는 인물 자체의 전기적 사실이나 문학적 업적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가보다, 소식을 특정한 유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중일석화』의 편찬자는 소식을 어떤 이야기의 도구로 삼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만력 이후 문인들이 소식과 그의 문장을 어떤 맥락에서 읽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王世貞(1526-1590)의 『蘇長公外紀』, 李贄(1527-1602)의 『坡仙集』, 그리고 王納諫(1579-1619)의 『蘇長公小品』와 같은 소식의 시문선집이 잇달아 출현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小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왕납간의 『소장공소품』 自敍를 보면, 소식의 문장을 수록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18 張國培, 「蘇軾故事在明代通俗小說中的流變」, 『平頂山學院學報』, 2017, 6. 참조.

오늘날 문인들은 모두 세상에 千秋에 남을 업적을 세우는 문장을 논하나, 그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묻는 바가 아니다. 내가 문장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를, 졸리다가도 읽으면 정신이 들고, 피곤할 때 읽으면 피로가 풀리며, 화가 날 때 읽으면 기쁨이 생기고, 한가할 때 읽으면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문장에서 얻은 것은 모두 한때의 즐거움이지 천추에 남길 뜻이 아니다.¹⁹

왕남간이 수용한 소식의 글은 文以載道나 經世濟民 같은 거창한 목적이 아닌, 권태와 피로를 풀어주는 일상적 즐거움과 일시적 흥취를 위한 것이다. 물론 만명의 문인들도 소식을 정론가나 대문장가로서 추앙했지만, 그와 동시에, 일상의 감성과 여가의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는 글쓰기의 주체로 소식을 재발견하고 있었다. 『산중일석화』 1권의 소식 일화는 바로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장국배가 지적한 대로 명말 통속 문학에서 소식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적 인물이라면, 『산중일석화』의 편찬자가 소식에게 맡긴 그 구체적인 역할은 바로 풍류와 흥취의 서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1권의 네 번째 작품 「遊金山(금산에 노닐다)」을 보자.

蘇子瞻(소식)이 손님들과 金山에 놀러갔다. 마침 중추절이라 하늘은 사방이 푸르고 끝이 없었다. 더하여 강물도 세차게 솟구쳐 흐르고 달빛은 대낮처럼 밝아 마침내 함께 금산 妙高臺에 올랐다. 歌者인 袁絢에게 자신의 「水調歌頭」를 노래하라 명하니 이르길,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나? 술잔 쥐고 저 하늘에 묻노라.”라 하였다. 노래가 끝

19 『蘇長公小品·自序』: “今之文人皆譚駐世千秋之業, 而非余所存問. 余于文何得? 對曰: ‘寐得之醒焉, 倦得之舒焉, 愜得之喜焉, 暇得之銷日焉. 是其所得于文者, 皆一餉之驪也, 而非千秋之志也.’” 이 제우, 「明刊本 王納諫 編『蘇長公小品』 연구」, 『중국어논문역총간』, 2019, 44, 42쪽 주석 13번 원문 재 인용.

나자, 소식이 일어나 춤을 추니, 온 좌중이 크게 웃었다.²⁰

소식의 유명한 詞인 “明月幾時有? 把酒問青天”이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이다. 이 소화에서 소식은 중추절 금산을 찾아 달빛과 강물을 벗 삼고 자신의 사를 노래하게 한 뒤 흥에 겨워 스스로 일어나 춤을 추었다. 여기에는 정론이나 경세와 관련된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사의 중심은 자연 속에서 시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풍류의 장면 그 자체이며, “온 좌중이 크게 웃었다.”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흥취와 해학에 있음이 명확하다. 편찬자가 전달하고자 한 소식의 일화는 결국 풍류의 한 장면이고, 소식은 풍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곧 왕남간이 말한 ‘한때의 즐거움’이 서사의 형태로 구현된 셈이다.

소식의 일화가 수록된 1권 다음, 2권에 수록된 총 61편의 소화에는 여성 관련 서사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1번 작품에서 23번 작품까지는 다음과 같이 7자로 표제를 정련하였다.

- | | |
|-------------|--------------|
| 2.1 楚娘矜姿色悔嫁 | 2.13 陳居士暫寄師叔 |
| 2.2 伴喜私犯張嬋娘 | 2.14 史君實贈尼還俗 |
| 2.3 花仲胤寄妻情詞 | 2.15 陳沆嘲道士啖肉 |
| 2.4 徐軍枝兩妻復舊 | 2.16 蔣氏嘲和尚戒酒 |
| 2.5 唐明皇嚙助情花 | 2.17 大壯作補闕燈架 |
| 2.6 山陰主戲褚彥回 | 2.18 扈戴被水香勸盞 |
| 2.7 賈皇后喜洛南吏 | 2.19 全遊善詞調恢諧 |
| 2.8 梁武獲鵠置膳 | 2.20 陸宅之贈妓爲尼 |

20 「遊金山」: “蘇子瞻與客遊金山, 適中秋, 天宇四碧無際, 加江流傾湧, 月色如畫, 遂共登金山妙高臺, 命歌者袁絢歌其水調歌頭, 曰, ‘明月幾時有? 把酒問青天.’ 歌罷, 蘇自起舞, 一坐大笑.” 앞의 책, 121쪽.

- | | |
|--------------|--------------|
| 2.9 郭順卿善調參政 | 2.21 陳無損題姬再適 |
| 2.10 劉婆惜巧合監郡 | 2.22 李端端被譽得名 |
| 2.11 宋玉辨已不好色 | 2.23 謝師厚嘲胥宿妓 |
| 2.12 崔女怨盧郎年幾 | |

이 표제들을 해석해 보면, 모든 표제에 인물과 행위, 그리고 대상이나 결과가 동일하게 드러난다. 제목만 읽어도 등장인물과 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핵심 서사가 이 7자 안에 압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작품 「楚娘矜姿色悔嫁」는 開封 출신 여성(楚娘, 인물)이 자신의 용모를 뽐내다가(矜姿色, 행위) 시집간 것을 후회한다(悔嫁, 결과)는 서사를 담고 있고, 「賈皇后喜洛南吏」는 賈皇后(인물)가 낙남의 관리를(洛南吏, 대상) 좋아한다(喜, 감정)는 내용을, 「山陰主戲褚彥回」는 산음공주(山陰主, 인물)가 褚彥回(대상)를 희롱한다(戲, 행위)는 상황을 7자 표제 안에 집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의 압축이 이야기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요약한 것인지, 아니면 편찬자가 특정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규정한 결과인지는 표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소화를 수록한 다른 문헌소화서의 표제와 비교해 보자. 다음은 2.23 「謝師厚嘲胥宿妓(사사후가 서리와 동침한 기생을 조롱하다)」의 전문이다.

元微之가 江陵 士曹로 좌천되었을 때, 젊고 호기가 넘쳐 襄陽을 지나며 밤에 이름난 기녀를 불러 실컷 술을 마셨다. 이별할 즈음 시를 지어 이르기를, “꽃가지가 물가에 뻗고 다시 연못에 닿아, 맑은 강물도 비추고 진흙도 비추네. 동풍에게 전하노니 잘 떠받들어 주게나, 지난밤 봉황이 머물다 갔으니.”라고 하였다. 謝師厚가 양양 부관으로 있을 때, 관영 기녀가 두 명의 서리와 서로 정을 통한다는 소문을 들

었다. 이 기녀이 부채에 글을 써 달라고 청하자, 마침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쳐 썼다. “동풍에게 전하노니 잘 떠받들어 주게나, 지난 밤 늙은 까마귀가 머물다 갔다네.”²¹

元微之는 唐代 元稹(779-831)이고 謝師厚는 北宋의 謝景初(1020-1084)이다. 이 소화는 원진의 시구를 사사후가 한 단어만 바꾸어 다른 의미로 전환시킨 것인데, 명말 풍몽룡의 문헌소화서 『고금담개』에도 동일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풍몽룡은 이 소화의 표제를 「舊絕句易字(옛 절구의 글자를 바꾸다)」라 하였다.²² 두 텍스트의 표제만 보아도 동일한 이야기에 대한 편집자의 읽기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몽룡의 「舊絕句易字」는 옛글자를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문인의 ‘창작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표제 아래에서 사사후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시적 재능과 재치 있는 언어의 사례로 읽히며, 이 소화가 『고금담개』의 文戲部에 수록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풍몽룡은 이 일화를 문인의 시 창작의 재능과 문학 기교가 빚어내는 해학의 전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산중일석화』의 표제 「謝師厚嘲胥宿妓」는 개작이나 기교가 아닌, 누가 누구를 조롱했는가라는 사회적 장면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사후라는 행위의 주체, 조롱이라는 행위, 서리와 동침한 기생이라는 대상을 표제에 전부 드러내어 성적 스캔들을 둘러싼 풍자담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소화를 두고 두 텍스트가 전혀 다른 표제를 부여했다는

21 「謝師厚嘲胥宿妓」: 元微之貶江陵士曹, 少年氣俊, 過襄陽, 夜召名妓劇飲. 將別, 作詩云, 花枝臨水復臨池, 也照清江也照泥. 寄語東風好擡舉, 夜來曾有鳳凰栖. 謝師厚作裏倅, 聞營妓與二胥相好, 此妓乞書扇, 遂改下句云: 寄語東風好擡舉, 夜來曾有老鴉栖. 앞의 책, 155쪽.

22 『고금담개』 文戲部 第二十七에 는「舊絕句易字」라는 표제 아래, 원미지와 사사후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기존 시를 차용해 풍자한 두 편의 소화도 함께 실려 있다. 馮夢龍, 魏同賢主編, 『馮夢龍全集·古今譚概』, 江蘇: 鳳凰出版社, 2007, 532~533쪽.

사실은, 표제가 단지 이야기의 내용을 압축한 문구가 아니라, 이야기에 대한 편집자의 해석과 평가가 담긴 일종의 비평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唐나라 湖州 參軍 陸蒙의 아내 蔣氏는 글을 잘 지었고 술을 몹시 즐겼다. 자매들이 술을 절제하고 밥을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자, 장씨가 이에 대답하여 말했다. “평생토록 유독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런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권하느라 너희가 수고가 많다. 그저 술그릇 속에 술만 가득하다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텐데 말이야.” 승려 知業이 시를 잘 짓기로 유명했는데, 어느날 육몽을 방문하여 현묘한 교리를 담론하였다. 장씨가 여종을 시켜 술을 들고 가서 지업에게 권하였다. 지업이 “계율을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씨가 그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스님이 지으신 시에 이르기를, ‘성벽에 접한 다리는 어느 곳으로 통하는 길인가, 난간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어느 집의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의 풍취와 운치로 본다면, 어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업이 부끄러워하며 마침내 물러갔다.²³

이 소화, 「蔣氏嘲和尚戒酒」는 사대부 여성의 시 창작 재능이 얼마나 깊은 경지까지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이다. 본문에서 승려 지업은 술을 권하는 장씨에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장씨가 승려가 지은 시의 내용을 들어 조롱하였다. 승려 지업이 지은 시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가득 담긴 세속적인 내

23 「蔣氏嘲和尚戒酒」: “唐湖州參軍陸蒙妻蔣氏, 善屬文, 然嗜酒, 姊妹勸節酒強食, 蔣應之曰: 平生好飲, 勞汝勸我食. 但得尊中滿, 時光度不難. 僧知業有詩名, 二日, 訪蒙談玄, 將使婢奉酒勸知業. 知業曰: 受戒不飲. 蔣氏嘲之曰: 祇如上人詩云: 接壘橋通何處路, 倚欄人是阿誰家. 觀此風韻, 得不飲乎? 業慚作, 遂起而退.” 앞의 책, 152~153.

용이었다. 현묘한 교리를 논하며 고결한 수행자인척하지만 실상은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이 시를 읽고 간파한 것이다. 그러나 표제 「蔣氏嘲和尚戒酒」를 보면 부인 장씨가 승려의 금주를 조롱한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승려가 계율을 지키려 술을 거절한 것이지, 술을 마시려고 하지는 않았다. 표제에서 戒酒라는 말을 넣어 마치 승려가 술을 마시다가 끊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조롱의 대상인 것처럼 구성하였다. 장씨가 조롱했던 부분도 정확히 말하자면 승려가 술을 마셨거나, 마시려 하거나, 마시지 않거나, 끊으려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시와 고결한 척하는 행동 사이의 위선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謝師厚嘲胥宿妓」에서 시구의 개작을 ‘조롱’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방식의 비평적 개입으로, 편찬자가 조롱한다는 동사를 표제어에 삽입하여 이야기의 성격을 재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23편의 표제에 담긴 편찬자의 시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23편의 서사가 모두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배열된 순서를 보면, 여성 서사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흐름은 크게 네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2권의 서두를 여는 작품들로, 여성이 욕망의 주체로서 서사를 이끄는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2.1, 2.6, 2.7). 초남은 자신의 용모를 뽐내다가 혼인을 후회하고, 산음공주는 남성을 직접 희롱하며, 가황후는 낙남의 관리에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낸다. 이들 작품에서 여성은 남성 서사에 종속된 객체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욕망을 당당히 표출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능동적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여성의 욕망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을 2권의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명말 남성 문인들이 여성의 욕망을 하나의 실재로 인정하고 그것을 독립된 소화의 서사와 해학의 동력으로 비중있게 다루었다는 뜻이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서사의 초점이 남녀 간의

연정과 혼인으로 이동한다(2.3, 2.4, 2.5, 2.12). 여기서 욕망은 개인의 층
 동에서 관계의 맥락으로 확장되며, 부부 사이의 정서적 교감이나 이
 별과 재결합의 서사가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배치는 첫 번째 단계에
 서 제시된 여성의 개인적 욕망이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양상으
 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주제가 심화된다. 한
 편 이 두 단계 사이와 그 전후에는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화나 재담
 적 성격의 작품(2.8, 2.9, 2.11, 2.17)이 간간히 삽입되어 있다. 이 작품들
 은 독립적인 주제군을 형성한다기 보다 여성 서사 사이에 가볍고 익
 살스러운 읽을거리를 끼워 넣음으로써 단조로운 반복을 피하는 완
 충 역할을 한다. 宋玉이 스스로 호색하지 않음을 변론하는 2.11이나,
 梁武帝의 황후의 질투를 잠재운 새 요리에 관한 일화인 2.8처럼 욕망
 이라는 상위 주제와 느슨하게 연결되면서도 서사의 톤에 변화를 주
 는 배치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교인의 세속적 욕망을 풍자하는
 작품 네 편이 2.13번부터 2.16번까지 연속으로 배치되었다(2.13, 2.14,
 2.15, 2.16). 도사와 승려, 비구니가 계율에 반하는 욕망에 빠지거나 세
 속의 논리에 굴복하는 이 작품들은, 신성한 권위와 세속적 욕망 사
 이의 충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소화 특유의 풍자를 보여주고 있
 다. 주목할 점은 이 네 편이 빈틈없이 연속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앞선 단계들에서는 유사 주제의 작품들 사이에 다른 성격의 소화
 가 삽입되었던 것과 달리, 종교인 풍자만은 네 편을 한데 모아 놓았
 다. 이는 편찬자가 이 주제를 하나의 독립된 단락으로 의식적으로 묶
 었다는 뜻으로, 앞의 두 단계가 세속인의 욕망을 다루었다면 여기서
 는 그 욕망을 종교인에게까지 확장하여 성스러움과 세속된 경계 자
 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서사를 진행시켰다. 네 번째 단계는 2.19
 번 이후 후반부에 집중 배치된 기녀와 문인의 교유를 다룬 작품군이
 다(2.19, 2.20, 2.21, 2.22, 2.23). 이 작품군에서 기녀는 詩詞 창작을 매개

로 문인과 대등하게 교류하거나 그 재능으로 명성을 얻는 존재로 그려진다. 글 재주를 통해 신분의 전환을 이루는 서사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사와 같은 문학장르에서 여성이 남성 문인의 정서를 투영하는 대상으로 소비되어 온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기녀의 형상은 앞선 단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 묘사되고 있다. 이상의 흐름을 종합하면, 2권의 23편은 여성의 욕망이라는 주제를 서두에서 제시한 뒤, 남녀 간의 연정으로 확장하고, 종교인의 세속적 욕망까지 포괄한 다음, 기녀와 문인의 문학적 교류로 수렴하는 구성이다. 23편에 등장하는 인물의 폭도 주목할 만하다. 唐明皇, 賈皇后, 宋玉 등 역사적 실존 인물에서부터 花仲胤, 郭順卿, 陳沆, 謝師厚 등 문인 사대부, 도사, 승려, 비구니 등 종교인, 그리고 張嬋娘, 李端端 등 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이는 여성과 욕망이라는 주제를 특정 신분이나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조망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7자 표제는 장회소설의 회목이나 칠언절구의 한 句와 흥미로운 형식적 접점을 지닌다. 예를 들면 『金瓶梅』 제1회의 회목 ‘景陽岡武松打虎, 潘金蓮嫌夫賣風月’처럼 인물과 행위, 대상과 결과를 대구 형식으로 압축하여 해당 회의 서사를 예시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물론 『산중일석화』의 7자 표제는 대구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목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자수 안에 서사의 골격을 응축한다는 원리는 같다. 또한 7자라는 자수는 칠언시의 한 句와 동일하여, 표제를 읽을 때 시구에 가까운 리듬감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유사성만으로 『산중일석화』의 편찬자가 장회소설의 회목이나 칠언시를 직접 모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 접점은 명말 소화서가 다양한 문학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각종 형식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컨대 『산중일석화』의 7자 표제는 동시대 문헌소화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다. 그것이 전편에 걸쳐 관철되지 않아 미완의 시도로 남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산중일석화』의 편찬이 나름의 체계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려 시도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체계가 복수 편찬, 수정자들을 거치면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것이 특정 개인의 취향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공유된 인식이었음을 보여준다.

IV. 나가며

■ 본고는 『산중일석화』의 편찬 주체의 진위 논쟁을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아 텍스트 내부의 언어적 실체와 편찬 구성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2장의 계량적 문체 분석에서는 『산중일석화』가 단일 편찬자의 저작인 『쾌원도고』에 비해 TTR의 분절별 편차가 현저히 크고, 파라텍스트의 서명에 근거하여 구분한 그룹 간에도 허사 빈도와 Bigram 패턴에서 일정한 차이가 확인됨을 밝혔다. 이는 복수의 언어 습관이 뒤섞여 편찬자가 다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3장의 꼼꼼히 읽기에서는 1권 전체를 소식 일화로 구성한 권별 편집의 논리와 2권 서두 23편에 일관되게 적용된 7자 표제의 서사 압축 구조와 비평적 기능, 그리고 단계적 주제 흐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산중일석화』의 편찬이 일정한 서사적 논리에 따라 의식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이상의 멀리서 읽기와 꼼꼼히 읽기를 종합하면, 『산중일석화』는 복수의 편찬 주체가 개입한 다층적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편집 의식이 관통하는 텍스트라는, 이질성과 체계성이 공존하는 문헌소화서임을 알 수 있다. 편찬 주체의 불확실성은 이 텍스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의 고유한 형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단일 작가론의 시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텍스트의 다양한 양상이야말로, 명말의 문학적 관습과 출판 문화, 소화라는 장르의 개방적 성격을 담아낸 집합체로서 『산중일석화』가 지니는 본질적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대상을 『산중일석화』의 하집에 제한하고, 비교군을 『쾌원도고』 한 종으로 한정하였으며, 가까이 읽기의 대상을 하집 전체가 아닌 1, 2권에 집중한 부분 등 본고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더 많은 소화 연구가 진행되면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편찬 주체가 불분명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계량 분석과 전통적 문헌 해독을 결합하여 텍스트의 내재적 가치를 밝히려는 방법론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李贄 編, 顏彥 整理, 『山中一夕話』,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23.
- 張岱著, 餘德餘, 宋文博 點校, 『快園道古·瑄朗乞巧錄』,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7.
- 馮夢龍, 魏同賢主編, 『馮夢龍全集·古今譚概』, 江蘇: 鳳凰出版社, 2007.
- 강범모,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 프랑코 모레티, 이재연 옮김, 『그래프, 지도, 나무-문학사를 위한 추상적 모델』, 파주: 문학동네, 2020.
- 김원중 편저, 『한문 해석 사전』, 서울: 휴머니스트, 2020.
- Genette, Gérard, and Jane E. Lewin, trans,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侯淑娟, 「『山中一夕話』初探」, 『東鳴中文研究集刊』, 1996, 05(3期).
- 邢慧玲, 「『山中一夕話』中的『醒迷論』作者非屠隆考辨」, 『洛陽師範學院學報』, 2013, 32.
- 張國培, 「蘇軾故事在明代通俗小說中的流變」, 『平頂山學院學報』, 2017, 6.
- 이제우, 「明刊本 王納諫 編『蘇長公小品』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2019, 44.
- 김숙향, 「明末 文獻笑話 탐색: 張岱『快園道古』속 소화적 성격 고찰」, 『중어중문학』, 2025, 100.
- _____, 「明末 文獻笑話 탐색 — 李贄『山中一夕話』笑話에 반영된 文人 趣向」, 『중국학논총』, 2025, 88.
- Tweedie, F. J., & Baayen, R. H., “How Variable May a Constant Be? Measures of Lexical Richness in Perspective”,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1998, 32(5)



■ 『山中一夕話』는 明末 李贄가 편찬했다고 알려진 『開卷一笑』를 저본으로 삼아 수정한 文獻笑話集이다. 그러나 권마다 상이하게 기재된 편찬자와 수정자의 서명, 그리고 명말 출판계에 만연했던 僞託의 관행이 맞물려 편찬 주체의 문제가 연구의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진위 고증에 대한 관심은 텍스트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소홀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복수 편찬 주체설의 근거를 텍스트 내부에서 찾고자 하여 멀리서 읽기와 꼼꼼히 읽기 방법을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멀리서 읽기에서는 하집에 수록된 산문체 소화 376편을 대상으로 TTR, 허사 빈도, bigram 패턴을 분석하였고, 단일저자의 저작인 張岱의 『快園道古』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중일석화』는 『쾌원도고』에 비해 분절별 TTR 편차가 크고, 파라텍스트의 서명에 근거하여 구분한 그룹 간에도 허사 빈도와 바이그램 구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복수의 언어 습관이 혼재함을 시사하였다. 꼼꼼히 읽기에서는 1권 전체를 풍류인으로서의 蘇軾 일화로 구성한 권별 편집의 논리, 2권 서두 23편에 일관되게 적용된 7자 표제의 서사 압축 구조와 비평적 기능, 그리고 여성의 욕망에서 종교인의 세속적 욕망, 기녀와 문인의 교유로 이어지는 주제적 배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을 통해 본고는 『산중일석화』가 복수의 편찬 주체에 의해 형성된 다층적 텍스트이면서도 일관된 편집 의식이 관통하는, 이질성과 체계성이 공

존하는 문헌소화서임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저작 귀속의 논쟁과 별개로 텍스트의 내재적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편찬 주체가 불확실한 명청 시기의 문헌에 계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선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산중일석화, 문헌소화, 멀리서 읽기, 꼼꼼히 읽기, 소화, 이질성, 체계성



Coexistence of Heterogeneity and System: A Study of Style and Editorial Structure in the Second Collection of *Shanzhong Yixihua* (山中一夕話)

Kim, Sook Hyang

(Korea University ·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 Research Professor)

■ *Shanzhong Yixihua* (山中一夕話) is a late-Ming anthology of Wenxian xiaohua (文獻笑話), believed to have been revised and expanded from *Kaijuan Yixiao* (開卷一笑), a text attributed to Li Zhi (李贄). However, inconsistent attributions across its volumes — reflected in varying signatures of compilers and revisers — together with the widespread practice of false attribution in late-Ming publishing, have rendered the question of authorship a persistent scholarly controversy. This preoccupation with authentication has left the intrinsic qualities of the text largely unexamined. The present study poses two questions: first, whether linguistic heterogeneity indicative of multiple compilers can be empirically verified within the text; and second, whether traces of a coherent editorial consciousness can be identified despite such heterogeneity.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study combines quantitative stylometric analysis (distant reading) with traditional close reading. For the distant reading, 376 xiaohua in the second collection (下集) were analyzed using type-token ratio (TTR), function-word frequency, and bigram pattern analysis, with Zhang Dai's (張岱) *Kuaiyuan Daogu* — a Wenxian xiaohua by a single, identifiable compiler — serving as a control text. The analysis reveals that *Shanzhong Yixihua* exhibits significantly greater inter-segment variance in TTR than *Kuaiyuan Daogu* and that groups divided according to differing paratextual signatures display discernible differences in function-word frequency and bigram structures, suggesting the coexistence of multiple linguistic habits. For the close reading, the study examines the editorial logic underlying the allocation of the entirety of Volume 1 to anecdotes about Su Shi (蘇軾) as a figure of refined taste, the narrative compression and critical function of the standardized seven-character titles applied to the first 23 pieces of Volume 2, and the thematic progression of these pieces — from female desire to religious hypocrisy to literary exchanges between courtesans and literati. Through this dual approach,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hanzhong Yixihua* is a multi-layered text shaped by multiple compilers yet pervaded by a coherent editorial consciousness — a Wenxian xiaohua in which heterogeneity and systematicity coexist. It further shows that meaningful textual analysis can be conducted independently of unresolvable authorship disputes and proposes a methodological model for applying combin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o other Ming–Qing texts of uncertain or multiple

authorship.

Keywords: *Shanzhong Yixihua* (山中一夕話), *Wenxian xiaohua*, Distant reading, Close reading, *Xiaohua*, Heterogeneity, System

- ◎ 투고 접수 2026. 03. 11.
- ◎ 심사 완료 2026. 04. 21.
- ◎ 게재 결정 2026. 04. 22.